

경남신문 > 사회

“고속도로 남북6축 연장을” 의령 범군민 캠페인

전통시장 일원서 홍보·서명운동
수도권-남해안 잇는 간선도로망
합천·의령·함안 연결 필요 주장

기사입력 : 2025-04-09 20:59:57

의령군이 합천~의령~함안을 연결하는 남북 6축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대대적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8일 의령전통시장 일원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장원영 의령군발전협의회회장, 강원덕 의령군체육회장, 장혁두 의령군노인회장, 황규백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장, 이주현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6축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범군민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8일 의령전통시장에서 열린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연결을 위한 의령군민 서명운동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5일장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남북 6축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알리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향후 의령군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의령 출신 향우들과의 연계를 강화,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도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향후 온라인을 통한 활동도 확대키로 했다.

남북 6축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다. 현재 계획 노선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과 달리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의령을 비롯한 서부경남 내륙지역이 소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의령군은 지난달 13일 의령군청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김윤철 합천군수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고속도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태완 군수는 “남북 6축이 의령을 경유해 남해고속도로 구간인 함안 군북IC와 직접 연결돼야만 지역 균형 발전, 물류 접근성 향상, 교통 효율성 등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며 “의령, 함안, 합천 세 곳의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공동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조운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조운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AD 맘카페에서 난리난 '눈밑꺼짐' 없애는 법	AD "비염,축농증" 쪽 뽑아낸 비법 (+6년 묵은 농...
AD 울썸라 받았을때보다 피부가 더 미쳤어요	AD 3년 묵은 통풍 '통풍덩어리' 제거한 실제 완...
AD 망막이 보내는 경고..."눈앞 날파리" 진짜 원인은?	AD 맘카페에서 난리난 "죽저근막염" 개선 꿀팁

AD

'180억 횡령' 김해 우리은행 전 직원 2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AD

40세 이상의 남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

[쓰쓸한 스승의 날] 존경·예우 사라진 교직사회... 감사의 날이 부담의 날로

AD

"전립선비대증"으로 밤에 자주 깬다면 OO 시도...

이 "K조선으로 해양강국 조성"-김 "사천, 우주항공 특화지구로"

울쎄라 받았을때보다 피부가 더 미쳤어요

